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COST OF ALL THING

가제 : 그 모든 것의 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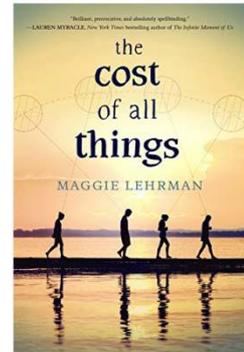
저자 : Maggie Lehrman

출판사: Balzer + Bray

발행일: 2015년 5월 12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주술의 힘을 빌려 원하는 것을 이룬 아이들, 그들 앞에 연이어 찾아오는 엄청난 대가와 책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실연의 고통을 돈을 내고 치유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마음만 먹으면 슬픈 마음을 몰아내고, 외모까지 싹 바꿀 수도 있다면? 남자친구인 원이 세상을 떠나자, 아리는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그와의 모든 기억이 지워지길 바란다. 그녀가 택한 방법은 학교 바로 뒤에 사는 어느 주술사를 만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주문을 사는 것. 하지만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항상 대가가 따르고, 이 일로 아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는 한 가지에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온갖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만다.

사실 아리는 주술사를 찾아갈 때부터 자신이 택한 이 방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아리가 어린 아이일 때 화재로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시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고, 당시에 주술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 주문의 후유증으로 손목이 계속 저리는 통증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원의 죽음으로 또 다시 주술사를 만나려간 아리는 앞으로 이어질 그 여러 번의 주술이 얼마나 커다란 결과를 몰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술의 힘으로 원의 존재와 그와의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온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아리는 그 엄청난 대가가 이미 찾아왔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게 된 것이다. 아리는 뉴욕에서 발레리나로 일하는 것이 꿈이었고,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 꿈은 실현 직전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달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먼 곳으로 달아나버렸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주술은 아리 자신은 물론이고 친구 케이와 마르코, 게다가 이젠 기억에서 지워진 원에게까지 알 수 없는 영향을 주고, 위험한 상황까지 찾아온다.

누구나 마음속으로 바라는 욕망과 희망, 각기 다른 상황에 놓인 네 사람의 눈으로 드러나는 진실

예뻐지는 주술의 힘을 빌리는 아리의 친구 케이, 그녀는 친구를 잃기 싫은 두려움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자신을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 하는 주술까지 이용한다. 동네 말썽쟁이였던 마르코는 가

장 친한 친구이던 원의 죽음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소설은 아리와 원, 케이, 마르코 네 사람의 시선으로 번갈아 가며 상황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통해 원이 죽기 전 과거의 일과 현재 벌어진 사건들을 긴장감 넘치게 담아낸다. 네 사람의 관점에서 독자는 아리와 친구들이 이용한 여러 개의 주문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관계를 조금씩 찾아가고, 의도치 않게 서로 꼬여버린 주문들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얽히게 만든 주문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급기야 주술사의 딸까지 개입하면서 여러 주술들은 각 주문이 지닌 힘을 보호하려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술의 진짜 힘이 드러나면서 아리와 친구들은 수습할 수 없는 사태에 휘말리고, 케이와 마르코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과 집착에 판단력을 잃고 만다. 그 와중에서 비록 함께 있지 않지만 원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친구들에게 한줄기 빛이 된다. 사랑과 상실, 회복, 인간의 욕망을 주술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섬세하게 그리고 우리 각자의 행위가 서로 얼마나 연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매기 레어먼(Maggie Lehrman)은 하버드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버몬트 예술대학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를 공부한 후 예술석사를 취득했다. 작가, 편집자로 활동 중이다.

제목 : IMAGINARY VETERINARY SERIES (총 5권)

가제 : 신기한 동물병원 시리즈

저자 : Suzanne Selfors

출판사: Little, B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4년 1월 7일(1, 2권)/ 2014년 6월 10일(3권)/
2015년 2월 3일(4권)/ 2015년 2월 24일(5권)

분량 : 240 페이지(1, 2, 5권)/ 224 페이지(3, 4권)

장르 : YA 소설



조용한 마을 한켠에 문을 연 우 박사의 ‘벌레병원’, 상상속 동물들과 두 어린이의 흥미진진한 모험

단추 공장들이 문을 닫은 후 적막한 마을이 되어버린 버튼빌. 문 닫은 공장에 이사 온 에머럴드 우 박사는 이곳에 ‘우 박사의 벌레 병원’이라는 묘한 이름의 동물병원을 새로 연다. 붉은 수영과 기다란 고양이 꼬리를 가진 조수 미스터 테비와 우 박사가 병원에서 하는 일은 비밀에 싸여 있다. 여름 방학을 할아버지가 계시는 버튼빌에서 지내게 된 열살 벤 실버스타인과 이 동네 최고 말썽쟁이로 소문이 자자한 펄 페탈은 우연히 우 박사와 병원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때부터 상상하지도 못한 모험이 시작된다.

신기한 동물병원 시리즈에서는 평범한 열 살배기 아이들과 꼭 닮은 두 주인공이 ‘상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오가며 펼치는 신나고 조금은 긴장감이 드는 사건들이 펼쳐진다. 각 권마다 책 뒤에는 이야기에 등장한 상상 속 동물과 괴물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과학적인 정보, 간단한 요리법까지 나와 있다.

1권 새스콰치의 탈출 (The Sasquatch Escape)

부모님이 ‘해결할 문제가 좀 있다’고 하시는 바람에 여름방학을 할아버지와 보내게 된 벤. 방학 내내 로스앤젤리스에 있는 집 뒷마당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싶었던 벤은 할아버지가 계신 마을 버튼빌에 도착하고 더 큰 실망감을 느낀다. 너무 조용하고 평온한 마을 분위기는 하품이 절로 나오는 곳 같았고 이번 방학은 정말 지루하겠구나 하는 좌절감만 들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네 고양이 버나비가 이상한 동물을 하나 잡아다가 벤의 침대에 올려놓는다. 자세히 보니 새

끼 용이었다! 용이 앞에서 막 나오려하자, 벤은 마을에서 새로 사귄 친구 펄과 함께 얼마 전 새로 문을 연 ‘벌레 병원’으로 서둘러 달려간다. 그런데 그 병원은 그냥 동물병원이 아니었다. 현실 세계와 다른 상상 속 세계, 그곳에만 존재하는 온갖 신기하고 괴상한 생명체를 치료해주는 병원이었다. 그런데 벤과 펄의 실수로 그만 털이 수북하고 푸딩을 제일 좋아하는 위험한 괴물 새스콰치가 병원 바깥으로 달아나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두 사람에게 서둘러 새스콰치를 잡아서 다시 병원으로 데려오라는 임무가 주어진다.

2권 외로운 호수 괴물(The Lonely Lake Monster)

비밀리에 신비한 생명체를 치료하는 우 박사의 병원에서 실습생으로 일하게 된 벤과 펄. 코가 엄청나게 큰 말버리 씨가 자신의 딸 빅토리아도 이곳 실습생으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그를 겨우 단념시키고 새스콰치의 발톱을 자르는 끔찍한 시험까지 통과한 두 사람은 드디어 제대로 일을 배우기 시작한다. 어느 날 병원 뒤편 호수에 사는 괴물을 발견한 펄. 우 박사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건물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지만, 펄은 괴물을 좀 더 가까이서 보려고 호수에 나가게 되고 벤도 펄의 뒤를 따른다. 그런데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낸 호수 괴물은 순식간에 벤을 낚아채더니 호수 중앙에 있는 작은 섬으로 데려가버린다. 과연 펄은 병원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벤을 탈출시킬 수 있을까?

3권 레인 드래곤 구하기(The Rain Dragon Rescue)

평화로운 버튼빌에서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고 물건도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 사람이 한 짓일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그저 벌레 병원으로 아는 우 박사의 병원에 드나드는 신비한 생명체들이 한 짓일까? 이제 어엿한 병원 실습생인 벤과 펄은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박사님의 조수인 미스터 테비가 두 사람에게 양동이와 삽을 건네주면서 병원 지붕에 올라가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지붕에 올라간 두 사람은 거기에 몰래 살고 있는 용 한 마리를 발견한다. 수북이 쌓인 용의 배설물을 삽으로 퍼내던 두 사람은 바로 이 용이 마을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의 범인이라는 증거들을 찾아낸다. 이제 도둑질을 그만하라고 설득해보려는 찰나,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호가 울리고 벤과 펄 앞에 심하게 다친 레인 드래곤이 나타난다. 우 박사는 불일이 있어 마을에 가셨고, 미스터 테비는 다른 일로 바쁜 상황이었다. 서둘러 치료하지 않으면 드래곤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두 사람은 우 박사가 정한 규칙을 깨고 드래곤이 있는 상상 속 세상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 세계로 가면 다시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4권 유니콘의 명령(The Order of the Unicorn)

우 박사의 벌레 병원에서 한창 일하던 벤과 펄에게 안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온다. 상상 속 세계에서 낯선 사람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 우 박사는 분명 막시무스 스틸이라는 자의 소행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막시무스는 신기한 동물들의 뿔을 훔치는 밀렵꾼. 그가 저지른 짓을 보면 곧

유니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벤과 펄, 우 박사는 그를 저지하기 위해 상상 속의 '엷히고설킨 숲'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 숲은 다채로운 색깔이 온통 화려한 곳이었다. 곤충들이 입에서 불을 뿜어내고 식물이 고기를 먹는 이 낯설고 무서운 곳에서 세 사람은 유니콘을 찾아내고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

5권 그리핀의 수수께끼(The Griffin's Riddle)

어느 때와 다름없이 상상 속 세계의 미스터리한 생명체들을 치료하던 우 박사의 병원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이상한 생명체가 앓던 병이 온 마을에 번지고, 우 박사님까지 전염되어 버린 것이다. 미스터 테비는 이 병을 치료하려면 그리핀의 깃털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핀은 상상 속 세계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왕이었다. 그를 만나 깃털을 얻어올 사람은 벤과 펄 밖에 없다. 동물들을 해치려고 계속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해대는 막시무스의 눈을 피해서 벤과 펄, 미스터 테비는 다시 한 번 상상 속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과연 그리핀은 순순히 깃털을 내어줄까? 또한 그들은 과연 무슨 대가를 치뤄야할까?

<저자 소개>

수잔 셸포어스(Suzanne Selfors)는 《Smells Like Dog》 시리즈, 《Fortune's Magic Farm》, 《To Catch a Mermaid》 등 여러 편의 책을 쓴 작가다.